

# 軍 특유 콘텐츠 개발... '군사문화' 新산업 잠재력 무한

## 창간 18주년, 軍 전문기자의 제언

국방예산에 비해 문화산업 미미  
군복·무기 등 소재 콘텐츠 다양  
美·中 등 영화 통해 영웅주의 소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0조 규모로 군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만, 군을 소재로 하는 '군사문화' 등 관련 문화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군사문화'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군 조직문화인 '군대문화'와 다르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문화를 의미한다. 군사문화는 군인의 생활, 군복, 무기 등을 소재한 콘텐츠 제작, 게임이나 스포츠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우수인력을 병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사문화 콘텐츠'가 모병 등 군사적 효과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사문화 콘텐츠로 모병에 나서자

군사역사와 전략의 전문가로 알려진 히브리 대학의 마르틴 반 크레펠트 교수는 "사람들은 전쟁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매혹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쟁을 비롯한 군사분야의 문화적 측면들, 예를 들어 제복, 절도있는 제식, 군인들의 의식주와 같은 문화적 요



일본은 자국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자위대원 모임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를 직·간접적 소재로 이용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메트로 DB



소가 미적인 매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크레펠트 교수의 주장처럼 군사복무의 가치, 제복 및 군인들의 생활양식 등에 매료된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러한 군사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군의 잠재적 병력자원이며 파생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대는 이러한 매니아층을 비롯한 매력적인 군사콘텐츠를 모병과 군 홍보에 활용한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영화산업 또는 자본을 투자한 영화 등을 통해 자국중심의 영웅주의를 소비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시리즈로 개봉된 '특수부대 전랑', 2016년 '오퍼레이션 메콩', 2018년 '홍해행동(紅海行動)', 2019년 '유랑지구(떠도는 지구)' 등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또는 특수경찰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묘사된다.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은 자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작에 육·해·항 자위대의 임무나 인물을 접목한 캐릭터를 이용하거나, 자위대를 직·간접적으로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병과 군사적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및 삽화집 등 출판물은 관련된 굿즈 상품(Merchandise)의 판매 등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육상·항공자위대의 상설 홍보관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계급별로 묘사한 피규어, 자위대의 운영장비를 캐릭터화 한 과자 등 특산물인 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2015년 일본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시카와현 고마쓰 주둔 항공자위대 기지 인근에서 생산된 고시카리(벼의 품종) 쌀에 붙은 '폭음쌀'이라는 쌀이 완판됐다. 종이로 된 쌀자루에 F-15 전투기 형태의 그림과 함께 'F15의 폭음을 듣고 자란 맛있는 쌀'이라는 '애교



이시카와현의 특산물 폭음쌀. 2015년 일본 온라인쇼핑몰에서 완판되면서 화제가 됐다.

섞인' 문구가 들어있다.

군사선진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우호적 군사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의식을 담은 문화콘텐츠들도 함께 수용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군사주의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순기능적 측면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 ◆한국의 군사문화 콘텐츠는 국력에 비해 빈약

국방예산 50조 규모의 국군의 경우, 위상에 비해 높은 퀄리티의 군사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MBC에서 방영된 '진짜사나이', 2016년 KBS에서 방영된 '태양의 후예'는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단발성으로 끝났다.

유명 연예인에 의존하는 콘텐츠의 한계, 리얼버라이어티라기 보다 군의 홍보 또는 오락성에 중점을 둔 편집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꾸준히 이어져 오는 군사문화 콘텐츠는 육군과

계룡시가 중심이 된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 軍문화축제'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단순한 전시·체험과 군복무 중인 연예인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지상군 페스티벌과 계룡 軍문화축제를 통합 '세계 軍문화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의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세계 각국의 의장대와 국안대 공연)처럼 풍성한 볼거리와 행사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군을 소재로 한 군과 민의 홍보물에도 문제점은 많다. 국방부는 과거 국방부 외벽 벽화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그려넣기도 했고, 육군과 기공원은 해외 유명 게임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모방한 삽화를 발행물에 이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9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담았고,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홍보물에 구 소련군과 북한군이 사용했던 T-34 전차의 모형을 사용했다. 화성시는 수원군 공항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유튜브 영상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아닌 러시아 공군의 'SU-47(베르쿠트)'를 한국 공군으로 묘사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10월 1일 페이스북에 국군의 날 69주년 축하 이미지에 '덴마크군의 발'을 사용해 빈축을 샀다. 때문에 '한국의 군사문화 콘텐츠에는 국군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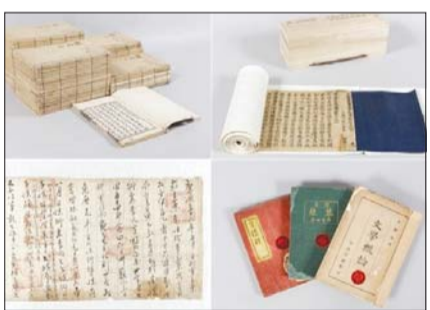
## 故이명준 소장자료 9283점, 서울대 기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증·기탁 협약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은 5월 29일 학봉 이명준(鶴峯 李明峻) 선생의 소장자료를 기탁받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탁자료는 ▲고도서 2219종 6153권 ▲고문서 1458종 1664점, 회화 5점 ▲근대도서 1214종 1461권 등 총 4896종 9283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규장각이 받은 기증·기탁 건 중 중 최대 규모이다.

기탁자료에는 대만아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密多經, 初雕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明內府刻本),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 자치통감강목, 대만 아바라밀다경, 근대도서, 형조입안 /서울대

간찰첩(簡札帖) 등의 고도서와 교지(敎旨), 형조입안(刑曹立案) 등의 고문서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출간된 희귀본 근대도서도 포함되어 있어 주

목을 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일생동안 고문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시로 청량리, 인사동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작고할 때까지 수집한 자료의 내용과 간행정보 등을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고문헌에 대한 안목과 지식 또한 상당했다.

규장각은 기탁자료의 세부 목록을 정비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서지사항, 원문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 순천향대 실기수업 참여인원 전원 코로나 검사

학생·교수 535명 검사비용 교비 지원

순천향대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체육 및 무도 실기 수업 참여 학생과 교수 5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기온상승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수업을 받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개인당 17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전액 교비로 지원했다.

순천향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순천향대는 체육·무도 실기수업 학생 5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순천향대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의 경우 발열 체크, 실험실 방역, 마스크 착용, 강의실 환기 등 매뉴얼에 의한 방역을 하고 대면 강의를 한다. /이현진 기자

## 동국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대학도서관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지정

동국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자유기획형 분야에 대학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토론·탐방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중앙도서관(관장 김갑순)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호모 커뮤니쿠스(Homo Communicus) 세상과 소통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중구건강자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주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비해 참여 시민들이 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로는 다문화 및 소외 계층 가정과 청소년들은 우선 선발한다. 김갑순 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 해보다 소통에 목마른 시민들에게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역할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덕성여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년간 사업 운영, 국고 4억 지원

덕성여대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하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 4월에 발표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2022학년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덕성여대를 비롯해 총 75개 대학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덕성여대는 2020~2021년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올해는 국고 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공체험 프로그램, 입시안내 프로그램, 모의면접, 정보소외지역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